

松谷 李瑞雨의 「靑巖錄」 考察*

- 비밀상의 체험에서 지식 생산으로의 전환 -

김 효 정**

1. 머리말
2. 「청암록」의 저술 배경
3. 「청암록」의 구성과 내용
4. 「청암록」의 기록 방식
 - 1) 見聞을 활용한 지리 지식의 확인과 확장
 - 2)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을 통한 사실성과 현장성의 확보
 - 3) 직접 경험과 검증을 통한 사실의 확인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상을 벗어난 유배라는 비밀상적 체험을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계기로 활용했던 17세기 후반 조선의 지식인 송곡 이서우의 「청암록」을 고찰한 것이다. 「청암록」은 송곡이 1680~1684년 함경도 부령과 청암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저술한 견문록으로 이 지역의 지리·풍속·주거·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청암록」의 저술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청암록」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청암록」의 기록 방식을 견문을 활용한 지리 지식의 확인과 확장,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을 통한 사실성과 현장성의 확보, 직접 경험과 검증을 통한 사실의 확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청암록」은 당시 거의 알려진 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사업단 HK연구교수(tteuri5105@daum.net)

가 없었던 청암을 비롯한 북관 지역의 풍속과 일상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매우 짙진하고 사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이 지역의 지리적·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17세기 말 청암과 북관 지역의 생활상과 지리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사, 지리적 사료 및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있다.

* 주요어: 송곡 이서우, 유배, 비일상, 청암록, 지식 생산

1. 머리말

이 글은 일상을 벗어난 유배라는 비일상적 체험을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계기로 활용했던 17세기 후반 조선의 지식인 松谷 李瑞雨(1633~1709)의 『靑巖錄』을 고찰한 것이다. 소확행은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말한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행복의 것이었는지 평소에 느끼지 못하다가 그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소중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일상·일상성이란 노동·소비·가족생활 등 인간의 생존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정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과정과 그 과정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성은 ‘비일상성’에 대립되는 개념이 된다.¹⁾ 즉 일상이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라면 비일상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²⁾

유배의 체험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 당한 후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던 일상이 파괴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일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와 같은 비일상적인 체험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오히려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경험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록과 문학작품이 창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 윤재환, 「17세기 漢詩에 수용된 日常의인 것의 意味와 限界-梅山 李夏鑣의 詩를 中心으로」, 『한문교육논집』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5쪽.

2) 김미영, 「조상 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509쪽.

숙종 대 근기 남인계열 관료로 활약했던 松谷 李瑞雨(1633~1709)는 1680년(숙종 6)~1684년(숙종 10)까지 함경도 富寧에서 2년 4개월간 유배 생활을 체험하며 209제 375수의 시와 「靑巖錄」을 지어 청암과 북관 지역의 다양한 면모와 정보를 담아내었다.

송곡은 근기 남인계열 시맥의 종장에 놓일³⁾ 만큼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뛰어난 시문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송곡은 대북계열에서 남인계열로 전향한 북인계 남인으로⁴⁾ 그의 부친 李慶恒(1601~1643)⁵⁾은 소북계열인 任叔英(1576~1623)의 문인⁶⁾이었으나 후에 대북계열인 李爾瞻(1560~1623)의 문하로 옮겨 활동하였다. 이러한 가계의 이력 때문에 송곡은 1660년(현종 1) 급제 이후 남인계열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계열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지방직을 전전하다가 1675년 許穆(1595~1682)의 추천으로 사간원 정언에 등용된 이후 동래부사·대사헌·함경도관찰사·예문관 제학·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송곡이 관직에 있었던 숙종 대는 남인계열과 서인계열의 정쟁이 치열했고 여러 차례의 환국이 있었다. 송곡은 이러한 시류 속에서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당시 파직되어 함경도 富寧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고,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으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남인계열이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문외출송 당한 후 청계산의 송파에 은거하다가 생을 마쳤다.

3) 丁若鏞, 「跋畫樓帖」, 「詩文集」 卷14, 『與猶堂全書』 第1集. “吾黨詩脈, 自湖州蔡裕後東州李敏求以來, 唯松谷李瑞雨得其宗, 而松谷之詩工緻少遠致. 燕超齋吳尙濂松門之顔子, 希菴蔡彭胤松門之曾子. 嗣此唯藥山吳光運菊圃姜樸得其傳. 若吾吾樊翁自道, 有不及夢瑞李良翁獻慶·法正丁海然後進無所託, 子其勉之.”; 「樊翁詩派」, 「餽飽錄」, 『與猶堂全書補遺』, “樊翁詩脉, 蓋自湖州·東州, 承以松谷, 而希菴·菊圃·吳藥山其親受者也. 樊翁亦盛推松谷, 爲非諸子所能及.”

4) 김효정, 「17세기 전반 北人系 南人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33쪽.

5) 이경항의 字는 士常·仲久이다. 대사헌 李戡의 증손으로, 조부는 李成憲이며, 부친은 李吉男이다. 1627년(인조 5)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이듬해 성균관학유로 등용되었다. 이후 전적·형조좌랑·공조정랑 등의 내직을 지내다가 신계현령·예안현감·경상도사·함경도의 도사 등의 지방관을 역임했다.

6) 許穆, 〈金正李公墓碣銘〉, 「丘墓文」, 『記言』 권20. “萬曆二十九年正月十二日公生, 才聰明, 善記誦, 受學於疏庵任學士叔英, 始知名.”

송곡의 학문 경향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북인계열이었던 부친과 부친이 수학했던 소북계열 문인 임숙영의 학문과 문학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인계열은 花潭 徐敬德(1489~1546)과 南溟 曹植(1501~1572)의 학풍을 이어 ‘自得’과 ‘실천’을 중시했으며, 주자학을 비롯해 天文·地理·兵法·醫學·武藝·老莊思想·陽明學 등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博學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⁷⁾ 임숙영 역시 학문은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⁸⁾

송곡의 시에는 自註를 달아 놓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유배 당시 지은 시에 함경도 방언이나 특이한 물산과 풍습 등을 묘사하면서 각주를 자세하게 달아 시의 이해를 돕고 있다.⁹⁾ 이와 같은 기록 태도는 실용성과 박학을 추구하는 북인계열의 학문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송곡은 남다른 관찰력으로 주변의 상황과 사물을 살폈는데 이는 다량의 기속시와 200여 수가 넘는 영물시의 창작으로 이어졌다.¹⁰⁾

현재 송곡에 대한 연구는 시문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가원이 李學達(1770~1835)의 기록¹¹⁾을 인용하여 송곡을 소개한¹²⁾ 이후 근기 남인계열의 문단과 시맥에 대한 연구¹³⁾에서 송곡이 근기 남인계열 문단

7) 신병주, 『조선준·후기 지성사 연구』, 새문사, 2000, 32쪽.

8) 李植, 〈司憲府持平疏菴任君〔叔英〕墓誌銘 并序〉, 「墓誌」, 『澤堂別集』 권6, “觀古今經傳子史, 皆根據義理, 揣摩事情, 要歸於實用. 嘗謂今之博於史者, 不以窮格爲主, 是塗說也, 於學何益.”

9) 〈偶閱北關誌 有記俗詩二律 漫次演之〉와 100구의 장편 오언고시 〈用宗之韻 書懷五十韻 却寄宗之 兼示善慶〉는 북관 지역의 다양한 면모와 세세하게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어 당시 북관 지역의 일상을 잘 보여준다.

10) 송곡은 영물시에 뛰어났다고 평가받았다. 星湖 李瀾은 『星湖僊說』에서 “송곡의 시는 영물시에 뛰어났다.〔松谷之詩, 長於詠物.〕”라고 하였고, 洪重寅은 『詩話彙成』에서 “영물시에 일가를 이루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종가와 왕원미는 영물시에 뛰어난 자인데, 근세 송곡 이서우의 영물시는 왕왕 고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詠物詩家最難事, 謝宗可·王元美是其妙者. 近世李松谷詠物, 往往不讓古人.〕”라고 평하였다. 또한 姜浚欽은 『三冥詩話』에서 “송곡 이서우의 시에 대한 명성은 당대 으뜸이었다. 그의 시는 편마다 아름다운 금과 옥 같았는데, 영물시에 더욱 빼어났다.〔李松谷瑞雨, 詩名冠一世. 其詩篇篇如精金玉, 尤長於詠物.〕”라고 평가하였다.

11) 李學達, 〈與或人書〉, 『秋樹根齋集』, 『洛下生藁』 9冊, “本朝時文體格, 始於國初春亭…(중략)…科詩至於李瑞雨, 賦至於鄭恒齡, 表箋至於林象德, 能事盡矣, 無復餘憾.”

12)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13) 심경호, 「18세기 중·말엽의 남인 문단」, 『국문학연구』, 1997, 태학사, 1997; 부유섭, 「동주

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임미정의 연구는 송곡의 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 송곡의 생애와 시세계 특징에 따라 고찰하고 송곡의 시문학이 지닌 의미와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하였다.¹⁴⁾ 이 연구에서는 송곡의 유배시 중 북관 지역의 풍속을 다룬 시 일부를 기속시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후 부유섭이 송곡의 삶과 시를 중심으로 살폈다.¹⁵⁾ 최근 들어 송곡의 유배시¹⁶⁾와 을병대기근 당시 재난 관련 시에 대한 연구¹⁷⁾, 송곡 문학에 구현된 정치적 견해의 형상화 양상에 관한 연구¹⁸⁾가 잇달아 진행되어 송곡의 문학세계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나 2,300여 수에 이르는 시와 이제 연구의 첫걸음을 뗀 산문 분야를 고려할 때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¹⁹⁾

이에 본 고에서는 송곡이 1680년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온 후 다음 해 2월 청암으로 이주하여 1683년 2월 해배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의 유배 생활 동안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청암록」을 대상으로 저술 배경과 구성 내용 그리고 그 기록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암록」에 대해서는 강석근이 송곡의 유배시를 검토하면서 「청암록」의 내용 일부를 함께 살핀 바가 있으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청암록」 전편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이민구와 남인 시맥의 전개,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윤재환, 『조선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14) 임미정, 「송곡 이서우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5) 부유섭,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16) 권경록, 「松谷 李瑞雨의 「赤壁賦集字 各體四十首」에 나타난 流配의 재현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48, 동양한문학회, 2017; 강석근,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의 유배시(流配詩) 연구(研究)」, 『동방학』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17) 김효정, 「송곡 이서우의 시세계 일고찰-을병대기근을 묘사한 재난 관련 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화한문학학회, 2021.

18) 김덕수, 「이서우 문학에 구현된 정치적 견해의 형상화 양상」, 『한국계보연구』 12, 한국계보연구회, 2022.

19) 송곡의 문집 『송파집』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10에는 시 2,300여 수, 권11~20에는 176편의 文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기행시·유배시·영물시·사행시 등이 떠난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문은 辭賦·銘·記·疏·說·雜說·寓言·傳·儷文·碑誌類 등 다양한 형식의 산문들이 수록되어 있어 송곡의 문학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다.

한다. 「청암록」의 고찰은 송곡의 산문문학 분야 연구의 편폭을 확장하는 동시에 유배라는 비일상적 체험을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계기로 활용한 송곡의 기록 정신을 살폈다는 점과 「청암록」이 당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청암과 북관 지역 백성들의 일상과 지리·풍속·경제·사회상 등을 알림으로써 당대 인문학적·지리학적 지식이 확장되는 데 일조했음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청암록」의 저술 배경

조선시대 유배문학의 보편적 특징은 격리·고립·소외라는 현실적 단절에서 오는 위기의식의 표출로 나타나는데²⁰⁾ 대개 유배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거나 客愁의 괴로움을 시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유배를 경험한 문인의 문집에는 유배 당시의 괴로운 심사를 담은 유배시들이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어 고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문인의 경우 유배지의 낯선 환경과 풍속 등에 눈을 돌려 이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당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송곡 역시 유배의 客愁를 시를 통해 일부 표출하였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암 지역의 풍속과 지역민들의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시와 「청암록」을 통해 남겼다. 이 장에서는 송곡이 「청암록」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곡이 부령으로 유배를 간 원인은 1680년(숙종 6)에 일어난 경신환국으로 인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남인계열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서인계열이 정권을 잡게 된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 당시 남인계열은 濁南과 淸南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탁남의 영수였던 許積(1610~1680)의 庶子인 許堅(?~1680)이 인평대군의 아들인 福善君 李栴을 왕위에 올리려 福昌君 李楨, 福平君 李柵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이 들어왔다.²¹⁾ 이로 인해 복선군과 허견

20) 윤재환, 「조선후기 유배 경험의 시적 형상화-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323쪽.

21) 『肅宗實錄』, 숙종 6년(1680년), 4월 5일(갑자)

은 역모죄로 처형되었고, 허적은 사직된 뒤 賜死되었다. 또한 청남의 영수였던 尹鑑(1617~1680) 역시 함경도 甲山으로 유배를 간 후 사사되었다. 이 사건으로 100여 명이 넘는 남인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는 등 대거 축출되었다. 당시 송곡은 북창군 이정, 복선군 이남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詩社 활동을 하는 등 평소에 친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노론계열인 金錫胄(1634~1684)의 탄핵을 받아 함경도 富寧으로 유배를 갔다.²²⁾ 함경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북단 지역으로 추운 날씨와 험한 지형으로 인해 사람이 살기 어려운 險地로 예전부터 유배지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함경도는 마천령 산맥을 기준으로 北關 지역과 南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²³⁾ 송곡의 유배지인 富寧은 북관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한양에서 1,800여 리나 떨어져 있는 遠地이다. 송곡은 유배 기간 동안 몇 차례 거처를 옮기며 곤궁한 삶을 꾸려갔다.

내가 경신년(1680년) 겨울 유배지에 이르러 처음에는 부성에 살았는데 양식과 꼴을 모두 60리 밖에서 가져왔으니 형세가 견디기 어려운 바가 있어 청암에 물러가 살기를 원하였는데 고을 수령이 내쳐 하지 않다가 다음해가 돼서야 비로소 허락하니 2월에 이주하였다. 3년 동안에 처소를 옮긴 것이 또한 세 번이나 되니 넘어졌다 일어지는 곤궁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간혹 찾아와 보는 사람이 있었으나 오래되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곡식을 빌리는 것이 통하지 않아 양식이 자주 떨어졌다.²⁴⁾

유배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것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며,²⁵⁾ 관료의 일상에서 벗어난 비밀상적 체험

22) 『肅宗實錄』 숙종 6년(1680년) 10월 2일(정해), 3번째 기사

23) 洪義榮, 「山川道里」, 『北關紀事』, “南關, 北關以摩天嶺分界.”

24)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余以庚申冬到配, 始居府城, 糴芻並資於二舍之外, 勢有所不堪, 願退居于靑巖則邑倅靳之, 至翼年始許, 以二月移住, 三年之內, 遷次亦三, 顛頓艱困, 不可備述. 其始也, 居人或來見者, 久之寂然, 假貸不相通, 礪石盡空.” 본 고의 번역문은 2016년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친회에서 간행한 이서우 저·이석호 역, 『국역 송파집』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5)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8쪽.

이자 청천벽력 같은 재난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신뿐만 아니라 당파 전체가 정계에서 밀려나고 동료들이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은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위의 글에서도 곡식과 땀감조차 얻기 어려운 유배객의 고단한 삶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송곡은 유배라는 불행한 체험을 좌절과 상실감으로 채우지 않고 왕성한 지적 호기심으로 유배지의 새로운 일상을 체험하며 획득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였다. 다음의 글에서 「청암록」을 저술한 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북도의 아홉 개 군에 유배 온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사는 이치가 쓸쓸한 것이 대략 서로 비슷했는데 오직 내가 특히 심한 것은 타고난 명이니 어찌하겠는가? 문을 닫고 책을 보는 틈에 듣고 본 것을 대략 기록했는데, 이는 이역의 풍속이 다른 것을 기억하려는 것이다.²⁶⁾

위의 글에서 ‘북도의 아홉 개 군에 유배 온 사람’은 북관 지역으로 유배 온 사람들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경신환국으로 인해 함경도로 유배 온 남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된 남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혐지인 함경도로 유배를 갔다.²⁷⁾ 송곡의 절친이자 성호 이익의 부친인 李夏鎭(1628~1682)도 함경도 雲山으로 유배를 갔다가 세상을 떠났다. ‘서로 바라보며 사는 이치가 쓸쓸하다’는 부분은 당시 송곡과 남인계열이 처한 서글픈 처지를 말해준다.

송곡은 위의 글에서 「청암록」을 저술한 목적을 이역의 풍속이 다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이 살아왔던 남쪽 지역과 너무나도 다른 북관 지역의 풍습과 일상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이 지역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고 송곡 역시 모르는 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낯선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대한 다양한

26)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北道九郡, 謫客相望, 生理蕭瑟, 大都相類而唯余爲特甚, 命也奈何. 閉戶觀書之暇, 略記聞見, 以記殊方謠俗之異云.”

27) 당시 남인계열의 핵심 인사였던 윤휴는 함경도 갑산, 이하진은 함경도 운산, 민중도는 함경도 종성, 홍우원은 함경도 명천 등으로 유배를 갔다.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거주지 확대는 지식의 확대로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탐험은 공간적 지식의 범위를 확대시킨다.²⁸⁾ 그러나 부령의 작은 마을인 청암에 대한 기록은 당시 지리지인 『東國輿地勝覽』이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볼 수 없고, 함경도 최초의 邑誌이자 송곡이 유배 당시 읽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北關誌』²⁹⁾에도 청암에 대한 기록은 「富寧府」 편에 「靑巖里, 府南九十里」가 전부이다.

17세기에 이르면 지방의 풍속과 문화를 기록하는 邑誌의 간행이 활발해지는데, 『북관지』는 1616년 함경도 北評事로 부임한 李植(1584~1647)이 1617년(광해군 9) 편찬을 시작하여 1662년 이식의 아들 李端夏(1636~1698)가 북평사로 부임하면서 완성한 사찬 읍지이다. 『북관지』의 정식 간행은 30년 뒤 1693년(숙종 19) 申汝哲(1634~1701)과 李三碩(1656~1710)이 증보하여 이루어졌고, 현전하는 『북관지』는 1782년(정조 6) 申大謙(1746~1807)이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³⁰⁾ 『북관지』는 훗날 『關北邑誌』의 저본이 되었다. 『북관지』는 정식 간행 이전에 이미 당시 관료 문인들 사이에 읽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¹⁾ 또한 송곡의 유배시 〈偶閱北關誌 有記俗詩二律 漫次演之〉를 통해 송곡 역시 유배지에서 『북관지』를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³²⁾ 「청암록」을 저술하는 데 『북관지』를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읍지들은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

28) 알프레트 헤트너 지음·안영진 옮김, 『지리학-역사, 본질, 방법』 2, 아카넷, 2013, 19~20쪽.

29) 『북관지』는 함경도 十府의 읍지를 개괄한 것으로 상권에 경성·길주·명천·부령 등의 4개 부가 있고, 하권에 회령·무산·종성·온성·경원·경흥 등의 6개 부가 수록되어 있다.

30) 김백철, 「조선시대 咸鏡道 지역사 試論-奎章閣 소장 地理志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31) 『顯宗實錄』 현종 7년(1666) 5월 23일 기사에는 이단하가 『북관지』를 鄭文孚의 역술한 죽음을 신원하고자 청원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32) 송곡이 『북관지』에서 보았다는 기속시 2수는 文谷 金壽恒(1629~1689)의 칠언율시 〈古城記事〉와 홍국보의 〈次韻〉으로 『北關志』 「鏡城府」 편에 수록되어 있다. 홍국보는 洪錫龜(1621~1679)로 국보는 그의 字이다. 김수항은 1664년(현종 5) 함경도 試官에 차임되었는데 〈길성기사〉는 이때 지은 시이다. 〈古城記事〉, 『文谷集』 권2. “天氣恒寒地不毛, 海洋曾染羯奴臊. 戎裝妓隊能馳馬, 皮服人家盡養獐. 官酒苦酸筍麥汁, 旅燈愁碧蕪鯨膏. 陰山丈雪埋行路, 時聽城頭虎夜嘯.”; 〈次韻〉 洪國寶, 『文谷集』 권2. “邊州旅食換顛毛, 水味常腥粟味臊. 淫祀古風多用特, 訟庭奇貨半爭獐. 燒來藻葉當鹽鹵, 摘取麻蕒作膳膏. 最是客程愁絕處, 驛夫呼馬類猿嘯.”

기 위한 지배층의 행정적 요구에서 편찬되었으므로 지방의 풍속과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³³⁾ 따라서 지역 백성들의 일상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렵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당시 북관 지역의 풍속에 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의 「咸興府」편에 있는 내용³⁴⁾과 여기에 북관 지역의 풍속 몇 가지를 추가한 『북관지』에 기록된 풍속이 전부이다.³⁵⁾ 결국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不在는 송곡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역(殊方)’은 ‘다른 지역’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나라’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는 송곡이 북관 지역의 풍속을 매우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천과 풍물이 경기도와 비슷한 남관 지역과 달리 마천령을 넘어 마주하는 북관 지역은 산세가 매우 험하고 民物과 풍속이 매우 이질적이다.³⁶⁾ 함경도는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강역으로 편입된 까닭에³⁷⁾ 이역으로 느끼는 이질감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함경도는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자 그 선조들의 주요 활동무대였으므로 조선 초기부터 「豐沛之鄉」으로 불리웠지만 서울과 거리가 멀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살기 어려웠으며, 여진인들이 오래전부터 흔거한 탓에 조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함경도를 異域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⁸⁾ 따라서 북관

33) 정우봉, 「조선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關北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 『고전과 해석』 1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5, 12~13쪽.

34) 〈風俗〉, 「咸興府」, 「咸鏡道」, 『東國輿地勝覽』 권48. “淳樸愚直, 以馳馬彎弓爲德. 動之以利, 妄爲然諾. 並李尹孫《鄉校記》. 尙巫祀. 郡籍. 勤儉強悍. 地志: “厥土多瘠, 風氣早寒, 勤儉強悍, 一道州郡, 率皆類此. 長轂車. 俗好用長轂車與藩車, 他郡縣同.”

35) 『북관지』에 추가된 북관 지역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有疾病不事醫藥, 惟用祈禱, 而儒生家則自近年以來亦不尙巫祀. 咸鏡一道鄉音最別, 而唯北道九官無鄉音. 蓋本幕南民入居, 故其子孫皆用故鄉音云. 風氣猛烈早寒小民類多鑿地爲屋間家皆用柵籬. 木綿不產庶民皆衣狗皮. 生理艱苦或自賣其身或多生子則不育而棄之. 酒味酸薄難飲四時用燒酒, 一道州郡皆有娼妓以娛樂使客, 蓋慰出塞征役而人亦以此多病政事從而廢墜不可不戒也.”이다.

36) 洪義榮, 〈風土民俗〉, 「北關紀事」, “南關則山川·風物與畿甸大同小異, 既逾摩天, 則已見山益高峻, 野益荒遠, 民物·謠俗漸覺殊異.”

37)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144쪽.

38) 강석화, 위의 논문, 137쪽.

지역을 이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송곡뿐만 아니라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은 송곡에게 오히려 특별한 것으로 인지되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으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듣고 본 것을 대략 기록했다’는 것은 「청암록」이 견문록의 성격을 지닌 저술임을 말해준다. 견문록은 작가가 타지의 여행을 통해 견문한 사실과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의 풍속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풍속기와 구분된다.³⁹⁾ 「청암록」은 청암 지역의 풍속뿐만 아니라 지리·주민의 구성·주거제도와 문화·삼배 농사와 같은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사실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기록하고 있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암록」의 저술은 박학과 실용성을 추구했던 북인계열의 학문 성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용성의 추구는 송곡이 유배 기간 동안 창작하였던 수많은 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송곡은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상과 다양한 요리법 등을 시를 통해 소개하는 등 실용성을 중심에 둔 유용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였다.⁴⁰⁾ 이와같은 경향은 송곡이 1694년 정계에서 물러난 후 송파에 은거하던 시기에 지은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송곡이 「청암록」의 저술한 또 다른 배경 중의 하나로 유배 이전인 1669~1670년 함경도 고산의 찰방을 지냈던 官歷을 꼽을 수 있다. 고산은 함흥과 가까운 지역으로 남관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송곡은 1년여 정도 고산에 머물며 〈咸山 十二絶〉⁴¹⁾·〈釋王寺〉⁴²⁾·〈夜宿釋王寺〉⁴³⁾ 등의 시를 짓기도

39) 정우봉, 앞의 논문, 11쪽.

40) 李瑞雨, 〈僮采蒲至 見新笋嫩白 試瀹之 加椒糝以食 味佳甚 與竹笋無異 我東人曾不解喫 詩以識之〉·〈咏菜〉·〈松膏餅歌〉, 『松坡集』 권4.

41) 〈咸山十二絶〉은 『松坡集』 권2에 수록된 칠언절구 12수 연작시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송파집』 권2에는 함흥 찰방 시절에 지은 시 37수가 수록되어 있다.

42) 석왕사는 함경도 설봉산에 있는 절로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해몽을 듣고 왕업을 이루기 위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李瑞雨, 〈釋王寺〉, 『松坡集』 권2. “曾聞聖祖微時困, 早有真僧此地逢. 異夢堪徵千異羽, 雄圖竟御六乾龍. 宸章板刻回雲漢, 佛寺金光照雪峯. 俛仰祝如瞻日角, 躊躇不覺到昏鐘.”, “脩羅無學號神僧, 契合興王識瑞徵. 絕世英姿圖上活, 當時善謔傳中矜. 山河不壞應千劫, 殿宇重新自一燈. 前代亦傳訛術祕, 兩雄端並釋門稱.”)

하였다. 이때의 경험이 함경도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송곡은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청암과 북관 지역의 풍속, 그리고 청암 지역민들의 일상을 직접 보고 듣고, 질문하면서 얻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청암록」을 통해 남김으로써 당대 지리학적·인문학적 지식이 확장되는 데 일조하였다. 유배라는 비일상적 체험이 오히려 북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된 셈이다.

3. 「청암록」의 구성과 내용

읍지나 여지와 같은 대개의 지리지에는 일정한 항목을 두고 그 아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의 표본이 되었던 『동국여지승람』의 경우 각 도의 沿革과 總論·官員을 적은 후, 牧·府·郡·縣의 建置沿革·官員·郡名·姓氏·風俗·形勝·山川·土產·城郭·關防·烽燧·樓亭·學校·驛院·佛宇·祠廟·陵墓·古蹟·名宦·人物·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읍지도 이와 비슷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관지』의 경우도 建置沿革·郡名·官員·疆界·山川·關防·海津·城郭·烽燧·館宇·學校·里社·驛院·祠廟·佛宇·古蹟·姓氏·人物·土產·風俗·官案·戶額·田案·財穀·貢案·進上·藥材·兵案·吏案·賤案·題詠·雜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풍속의 경우 「鏡城府」 편에서 북관 지역의 대표적인 풍속을 개괄하여 소개하였고, 나머지 지역에는 풍속의 내용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청암록」의 경우 여느 지리지처럼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2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에는 청암의 지리와 북관 지역 주민들의 일상·풍속 등이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43) 李瑞雨, 〈夜宿釋王寺〉, 『松坡集』 권2. “花宮細路石門穿, 小傘招搖夕照天. 刮眼峯巒秋雨後, 稱心樓閣瀑流邊. 風生黛栢憐清夜, 火殺紅梨惜往年. 雙碓遞鳴孤燭盡, 旅魂愁絕不成眠.”, “郵驂幾日赴官期, 梵宇諸天得我時. 何等精神孤嶂立, 自然聲律萬松吹. 橫溪略約僧行慣, 待月關干客寢遲. 永夜蒲團吟正苦, 斯文芝老語留奇.”

는 점에서 『북관지』와 차별화된 면모를 보인다. 「청암록」에 수록된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靑巖錄」 소재 내용

연번	세부항목*	내용	비고
1	청암	- 청암의 지리적 위치, 지명의 유래, 토질, 가구 수 등 소개 - 청암으로 이주한 이유와 과정, 곤궁한 삶의 토로 - 「청암록」의 저술 이유	1680년 10월 부령 유배
2	부령	- 부령 성의 높이와 포루 소개, 성 안팎의 상황 서술 - 부령의 땀감과 물의 수급 상황, 토질 소개	
3	장백산	- 장백산의 위치와 식생	
4	형제암	- 형제암의 위치, 주변 형세 서술 - 李枝遠이 방언으로 지은 시와 종성부사의 일화 소개	시, 일화
5	靑壁	- 임술년(1682년) 既望 청벽 유람 - 청벽의 높이, 모양 묘사. 높은 어부와의 사례 소개 - 〈적벽부〉를 본 뜬 각체시 40편 창작 - 소감	본인 사례
6	주민의 성씨	- 주민들의 성씨 - 성을 바꿨던 김씨 삼형제 사례 소개.	사례
7	주거 제도와 문화	- 남쪽과 다른 일자형 가옥의 형태와 실내 구조 소개 - 주인과 손님, 부인과 종, 머슴들이 한 방에서 기거하는 주거 문화 서술 - 가옥의 겨울과 여름의 실내 모습 묘사 -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풍습 - 부엌과 잠자는 공간이 한 공간에 있는 가옥의 특징 서술 - 소감	
8	주민의 신분	- 세 등급으로 분류되는 주민들의 신분과 신분의 고하를 크게 따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소개 - 가축의 도살을 천시하지 않는 풍속 소개	
9	토질	- 주민들은 토질이 척박하다고 여기나 오히려 비옥하다고 봄. 그 이유를 지역의 농경 문화를 예로 들어 설명함. - 농사짓는 계층은 모두 하층민임. 牛耕이나 거름을 사용할 줄 모름. 보습이나 쟁기 등 농기구도 사용하지 않아 땅이 거칠고 척박함. 그럼에도 대흉년이 아닌 이상 굶주리는 백성이 별로 없음을 이유로 들.	

연번	세부항목*	내용	비고
10	길쌈 생산 과정과 가치 평가	- 삼베짜기의 어려움과 절차의 과정을 15개로 자세하게 기술 - 북쪽 지역의 마포가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삼베짜기로 생업을 유지함을 소개	
11	모친 폭행 사건	- 모친을 폭행하는 세 명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비호하는 풍속을 개탄함. - 소감	사례
12	埋兒의 풍속	- 군역의 괴로움으로 인해 아들을 땅에 묻는 埋兒의 풍습을 듣고 이를 확인함. - 아이를 묻은 네 명의 사례를 자세하게 서술 - 소감	사례
13	음란한 풍속	- 음란하고 방탕한 풍속의 서술 - 천민이나 양인의 딸들이 창기가 되었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혼인을 하는 세태를 속담을 인용하여 기술 - 소감	사례, 속담
14	사나운 풍속 三綱의 부재	- 사납고 독한 풍속의 서술 - 부부간, 형제, 숙질간, 남매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례로 기술 - 소감	사례
15	무속신앙의 폐해	- 淫祀에 대한 숭상이 유난히 심한 풍속을 서술 - 모든 일을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뵈. - 소감	사례
16	노비의 환속으로 인한 문제	- 公私의 노비 일부가 布를 바치고 萬戶, 權官의 관직을 얻는 일의 만연과 이로 인한 문제점 기술 - 소감	사례
17	민간요법의 폐해	- 의약을 쓸 줄 모르는 풍속과 민간요법인 火釘의 폐해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서술	사례
18	互市	- 회령, 온성 등에서 이루어지는 互市 소개 - 私市의 성행과 관리까지 가세한 害惡 기술 - 청나라 상인에게 아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서술	사례
19	관리의 태도 고발	- 미신을 믿고 함부로 제사를 지내는 淫昏한 풍속에 앞장서는 관리의 태도를 실제 사례를 들어 고발함. - 소감	사례

연번	세부항목*	내용	비고
20	이역의 풍속	- 청암의 풍속이 이역의 풍속임을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함. (통발로 잡은 개를 주민들이 밤에 몰래 훔쳐 감. 주민들은 자신들과 다른 풍속을 인정하지 않음.) - 소감	사례
21	주민들의 성정	- 홍종지가 주민들의 성정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직접 시험해 봄.	사례
22	관리들의 문제	- 鄕인이 고향의 관리가 되면 잘 다스리지 못하는 까닭을 박봉경과의 문답을 통해 깨닫고 통탄해 함. - 소감	사례
23	국방력의 약화 문제	- 북방 군사의 용맹성 약화와 군사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서술. -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무서워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 병졸들의 실제 사례 서술.	사례
24	文治의 폐단	- 문치를 북도 제일의 폐단으로 꼽고, 다음으로 강상의 변을 꼽음. 그 이유를 설명함.(문치는 변방 지역에 맞지 않고 임금만이 할 수 있음.)	
25	文治의 폐단	- 문치의 폐해를 교활한 길주의 교생을 예로 들어 설명함. -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 못해 죽은 쥐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분수를 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꼬집음. - 소감	사례
26	동물	- 시라소니, 사슴, 유를 예로 들어 사람의 미련함을 비유함.	

* 세부 항목은 필자가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청암록」의 단락별 내용을 살펴보면 1~5번은 청암과 부령 지역의 지리에 대해 서술한 것이고, 6번과 8번, 21번은 주민의 성씨와 신분의 등급, 성정에 대한 서술이다. 특히 1번은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부령에 유배 온 시기와 청암으로의 이주 과정, 사는 형편, 그리고 「청암록」을 저술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 중요하다. 7번은 주거생활, 9~10번, 18번은 각각 토질, 삼베 짜기 과정과 가치 평가 그리고 호시 등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11~15번, 20번은 풍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9번과

22번은 북관 지역 관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23번은 북관 지역 군사력의 약화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4~25번은 북관 지역 문치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26번은 동물을 예로 들어 사람들의 미련함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소감을 짧게 피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청암록」에 수록된 내용은 지리·풍속·경제·국방·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관 지역의 면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의 종합 博物誌라고 할 수 있다. 「청암록」의 내용은 크게 지리·주민·주거·토질·경제·풍속 등 북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중점을 둔 것과 국방·관리·지역 문사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는 서술에 중점을 둔 부분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중 7번은 북관 지역 특유의 주거 형태와 문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청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다.

집과 실내의 제도는 남쪽과 매우 다르다. 모두 긴 방으로 만들어서 비록 5~6칸이라도 모두 온돌이 통하였고, 상인이 오면 주인과 손님이 같은 실내에서 잤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고쳐 사이에 벽을 두어 손님방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부인과 종, 머슴이 잠자는 곳이 같은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 겨울 추위와 호랑이의 난폭을 막기 위하여 다듬이돌, 돌절구, 소구유를 나란히 화로 곁에 설치해 놓았다. 여름에는 소와 말의 땡오줌 냄새와 파리·모기 등 잡벌레들이 우글거려서 견딜 수가 없고, 개를 기르는데 적어도 6~7마리 이하는 아니었다. 눕고 일어나기를 부엌에서 하는데 털을 긁으면 먼지가 일어났다. 사람의 남긴 음식 대부분을 훔아먹고 남기니 아, 더럽구나.⁴⁴⁾

이와 같은 북관 지역의 주거 문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나 『북관지』와 같은 이전의 지리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송곡에게 매우 생소한

44)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屋室之制, 與南絕異, 皆爲長房, 雖五六間皆通炕, 商旅至, 主客同室而宿, 今頗改制, 間壁爲客房. 然其婦人與奴僮工, 同寢處不以爲嫌, 且爲冬寒及厖暴, 砧碓槽檻, 並設灶傍. 夏則牛馬矢尿之臭, 蠅螻雜虫之繁, 不可耐堪, 畜犬少不下六七, 卧起厨上, 爬毛湊氣, 人之飲食, 率多舐啖之餘, 噫其陋矣.”

것이였다. 송곡은 청암 지역의 가옥 구조가 남쪽과 매우 다른 점을 신기해하며 가옥의 구조와 실내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북방 지역은 추운 날씨와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집의 구조는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고 열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가 적합하다. 6~7개의 방이 하나로 길게 연결되어 온돌이 통하는 구조는 이와같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운 겨울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듬이 돌과 돌절구, 소구유까지 모두 방안에 두는 것과 이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가축의 분노 냄새와 파리·모기가 들끓는 환경, 개를 집안에서 여러 마리 키우는 일상의 정경을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이처럼 송곡이 가옥 내부의 모습까지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현지인의 일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송곡 역시 같은 주거 형태의 가옥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손님과 주인이 함께 기거하거나 여주인과 하인들이 한 공간에서 자는 주거 문화는 송곡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청암록」은 북관 지역의 풍속을 기록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조선의 일반적인 풍속과 매우 다른 북관 지역의 풍속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소개하며 이에 대한 소감을 짧게 밝혔다. 이중 군역의 고통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을 땅에 묻거나 모친을 폭행하고, 부부간 혹은 숙질, 남매간에 폭행이 빈번한 풍속을 주요하게 다루며 三綱의 道가 不在함을 개탄했다. 또한 의술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병이 나면 무당에게 빌거나 시뻘궂게 달군 대못으로 치료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기록하였다.⁴⁵⁾

또한 미신 숭상에 앞장서거나⁴⁶⁾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私市를 단속하지

45)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俗不知醫藥, 人麻木酸疼, 皆灼艾, 卧病則謂鬼祟, 皆施火釘, 艾灼於無益之處, 不至甚害, 而火釘之禍則甚烈, 盖釘有兩義. 一曰丫釘, 舊有兩股, 如箸頭大, 燒紅飛點, 略如京醫之點烙者然. (중략) 辛酉冬, 鄰有一品官傷寒久病, 其弟來問曰, 寒熱往來, 有時譫語, 定是接邪, 欲施火釘, 可乎. 余喻止之. 至春, 聞病減什五, 將欲蘇矣. 弟與子謀曰, 焉有寒疾彌留數月, 接邪無疑也. 竟施錯釘, 遍體潰爛遂死云.”

46)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癸亥元旦, 鏡城妓有暴死者, 一民亦然. 府人譚謂鬼行, 判官李子西涓日設祭, 爲文禱于川邊, 此雖癘祭之比. 然長民者, 道之不可不謹. 何可因一二人之暴死而擅設無名之祀, 以倡其淫昏之俗哉. 文士如此, 武人不足責也.”

못하는 북방 관리들의 문제적 태도⁴⁷⁾와 민간에 큰 피해를 주는 호랑이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나약해진 군사력 문제⁴⁸⁾, 글도 읽지 못하면서 儒林 행세에만 專一하는 지역 文士들의 문제점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비판하였다. 송곡은 북도 최고의 폐단으로 文治로 꼽았고, 다음으로 강상의 변을 들었다.⁴⁹⁾

이와 같은 북관 지역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 송곡은 이역의 풍속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청암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었고, 「청암록」에서 다루지 않은 일상의 다양한 면모 또한 시를 통해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부령과 청암을 비롯한 북관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⁵⁰⁾ 『청암록』의 기록과 송곡의 유배시는 당시 배일에 싸여 있던 북관 지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47)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民之私市者有禁, 而邊吏奉法不謹, 私市常倍徙於官. 且權在於彼, 其貨之價歲益高, 我民失利者甚多, 而猶奔走恐後.”

48)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北卒舊稱勁悍. 蓋清虜以前, 日相攻戰, 彼來者多不過數百千人, 少或數十騎, 弓劍又朴鈍, 故我勝多敗少. 卒習而勇, 無事日, 射獵熊虎以養其武猛, 俗稱北卒打胡如打狗, 擒虎如擒鷄者, 爲是故也. (중략) 辛酉冬, 鍾城有猛虎, 食人且十餘, 發卒捕之, 卒懦慄不敢前, 妄云.”

49)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文治固有國之所修者. 然施諸邊鄙則不可. 無論三代, 自漢以下, 幽薊隴涼等地, 曷嘗有興文者乎. (중략) 試以靑巖言之, 冠儒巾服儒衣, 不識一字, 自稱儒林者, 殆數百人, 不服畊不習射, 羣聚而喁曰, 不幸有邊患, 我儒輩亦當乘障耶. 且其率奴, 亦皆免束伍之役曰, 儒林豈無守家之奴耶. 且謗曰, 武人仕止僉萬戶, 文士, 決科外無鄉薦入仕者, 何國家之待北甚薄也. 噫甚矣. 其不自量也, 設令家庠戶塾, 蔚然成章, 已非守邊之具, 況其盜虛名而喪實備者耶. 故余以文治爲北道第一弊, 綱常之變爲次.”

50) 「청암록」처럼 함경도 부령 지역의 풍속을 기록한 것으로는 金鰲(1766~1822)가 쓴 <愚陽樂府>가 있다. 김려는 1797년(정조 21) 姜彝天(1768~1801)의 飛語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가 1801년(순조 1) 경남 진해로 이배되었다. 김려는 진해에서 지내면서 부령의 생활을 추억하며 <사유악부>를 지었다. <사유악부>는 상하권에 290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령 지역의 일상과 풍속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청암록」보다 약 100여 년 뒤에 쓰여졌다.

4. 「靑암록」의 기록 방식

1) 見聞을 활용한 지리 지식의 확인과 확장

낮선 공간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리적 측면에서 공간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그 지리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쉽게 연계시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송곡 역시 청암이라는 낯선 공간에 대해 보고 듣는 지리적 탐색 과정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 나갔다.

(가) 청암은 부령의 마을 이름이다. 북쪽으로 부까지의 거리가 60리이고 남쪽으로 바다까지는 30리이다. 해안에 청벽이 있으므로 이름한 것이라고 한다. 밭과 들판이 비옥하고 온 고을이 가장 넓고 좋은 곳으로 여긴다. 부령에는 가구가 거의 600호인데 청암이 7분에 5를 차지하고 있다. 곡식과 벚짚, 고기와 소금의 공급이 모두 이곳에 의지하고 있다.⁵²⁾

(나) 형제암은 부에서 동쪽으로 20리에 있다. 길 왼쪽 냇가에 두 개의 바위가 마주 보고 서 있는데 그 사이가 수십 보이고, 높이는 백 여장인데 그중 하나는 조금 작다. 대패로 깎아낸 듯이 기괴하고, 작은 시냇물이 바위를 가운데 두고 흘러 냇물이 바위를 감싸고 돌아 못을 이루었는데, 넓고 맑으며 깊고 푸르다. 봄과 여름에는 물고기가 무수히 헤엄친다. 못 주변의 땅을 손질해 소나무를 심어서 사신들이 유람하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철령 이북의 제일가는 명승지이다.⁵³⁾

(가)는 「靑암록」의 시작 부분으로 청암의 지리적 위치, 지명의 유래, 특징

51) 김묘정,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가 포착한 일본의 일상 지식-『해행총재(海行摠載)』의 문견록(聞見錄)을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22, 299~300쪽.

52)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靑巖, 富寧社名也. 北距府六十里, 南距海三十里, 以海岸有靑壁而名云. 田塋肥衍, 畝爲一邑寬曠處. 寧戶僅六百, 而靑巖居七之五. 粟秸魚塩之供, 皆賴於是.”

53)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兄弟巖在府東二十里, 路左川邊, 兩巖對峙, 間數十步, 高可百餘丈, 其一差小. 戍削奇恠, 小澗中巖而注, 川抱巖成潭, 泓澄深碧. 春夏游魚無數, 潭邊除地植松, 爲使客游觀之所, 鐵嶺以北第一勝地也.”

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청암록」은 청암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보지 않은 곳의 지리 지식을 획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도나 지리지 등과 같은 전대의 문헌을 통한 접근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공간에 왔을 때 알고 있던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추가로 알게 된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에 현지인에게서 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지식을 확장하게 된다.⁵⁴⁾

부령의 작은 마을인 청암 지역에 대한 소개는 『북관지』에는 “청암리, 부의 남쪽 90리에 있다[靑巖里, 府南九十里]”, 『大東地志』에 “청암, 남쪽으로 90리 인데, 바다에 이르렀다”⁵⁵⁾가 전부이다. 그러나 「청암록」에는 90리의 거리를 북쪽으로 60리, 남쪽 바다까지 30리로 세분화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청암의 지명에 대한 유래, 600여 호에 이르는 부령의 가구 중 청암에 5/7 이상이 있으며, 곡식과 고기, 소금 등 주요 산물들이 청암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기존의 지리지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이다.

(나)는 형제암에 대한 서술이다. 형제암은 부령 지역의 명소로 『신증동국여지승람』·『북관지』·『북관기사』 등 여러 지리지와 풍속지에 소개되어 있다. 「청암록」보다 앞선 시기의 대표적인 輿地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형제암, 부의 남쪽 19리에 있다. 두 바위가 마주 보고 솟아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⁵⁶⁾라고 서술되어 있다. 『북관지』에는 형제암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다.⁵⁷⁾

대부분 형제암이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는 외형의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청암록」에는 형제암의 높이와 두 바위 사이의 거리, 두 바위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 주

54) 김묘정, 앞의 논문, 306~307쪽.

55) 金正浩, 「富寧」, 「咸鏡道」, 『大東地志』 권20. “靑巖, 南九十, 至海.”

56) 「富寧都護府」, 「咸鏡道」,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0. “兄弟巖, 在府南十九里, 兩巖對峙, 一大一小, 故名.”

57) 李植, 「山川」, 『北關誌』. “兄弟巖, 在府南十九里, 兩巖對峙, 一大一小, 故名.”

변의 소나무 등 주변의 경관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문헌을 통해 어렵듯이 알았던 형제암을 실제로 보고 정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함으로써 기존의 지리 지식을 추가 보충하여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암록」보다 후대인 19세기에 편찬된 『북관기사』에는 “서쪽으로 떨어져 형제암이 되는데, 계곡을 앞에 두고 양 바위가 창연히 우뚝 서 있다. 큰 것은 윗부분이 둥글고 작은 것은 조금 뾰족하다.”⁵⁸⁾라고 하였고, 『연려실기술』에는 “부령의 형제암, 부의 남쪽 20리에 있다. 산기슭에 두 바위가 마주 보고 섰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작은 시내가 그 사이를 흘러내린다.”⁵⁹⁾라고 기록되어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암록」에 기록된 정보보다 소략하다.

(다) 부치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쌓았다. 돌로 들쭉날쭉 쌓았는데 높이는 거의 세 장이었고 포루는 우뚝한데 더러 빛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기도 하였다. 성의 안팎에는 아전과 관노들의 집만 수십 호 있고, 밭과 채마밭은 다 모래와 자갈이어서 곡식과 채소가 성숙하는 것이 적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아주 드물었다. 들으니 육진의 읍성은 땀감과 락땀을 장만하는 곳이 모두 먼데, 회령은 게다가 물길을 곳도 멀어 걱정이었다. 오직 부령만이 땀감과 물길을 곳이 모두 편리하나 토질의 품질은 가장 하품이라고 한다.⁶⁰⁾

(라) 장백산은 사철 내내 하얀데 오직 6월에서 7월 초순까지 눈이 없다. 청암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봉우리들의 수목들을 역력하게 가리킬 수 있는데 약 5~60리에 불과하다. 여러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대개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고개가 있고, 도로가 매우 험해서 그렇다고 한다. 산속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고 수목이 울퉁불퉁하며 껍질의 두께가 한 치 남짓하며 한여름에는 크고 작은 사슴들이 무리

58) 洪儀泳, 「山川道里」, 『北關紀事』, “西落爲兄弟巖, 臨溪兩石蒼然屹立, 大者圓頂, 小者稍尖.”

59) 李肯翬, 「山川形勝」, 『燃藜室記述 別集』 권16. “富寧兄弟巖, 府南二十里, 山足兩巖對峙, 一大一小, 有小川流下其間.”

60)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府治依山而城, 石築甌甌, 高僅三丈, 砲樓撓兀, 或蓋以樺皮. 城內外唯吏奴家數十戶, 田園皆沙磧, 穀菜尠成熟, 四時無風之日至罕, 聞六鎮邑城樵茅皆遠, 而會寧兼患遠汲, 唯富寧, 樵水俱便, 土品則最下云.”

지어 모여있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는 모기와 진드기가 붙어 쏘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⁶¹⁾

지리 지식의 확장은 실제로 관찰을 통한 사실적 지리 정보 수집에서 본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⁶²⁾ 현지인에게서 듣거나 물어서 입수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정보를 담게 된다. 송곡은 현지인에게서 정보를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청암 지역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다)는 부령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전반부는 송곡이 직접 관찰한 것을 서술한 것으로 성의 높이와 포루의 모습, 성 안팎에 있는 아전과 관노의 가구 수, 밭과 채마밭의 작황 상태, 사계절의 날씨 등을 기록하였다. 후반부는 주변에서 들은 것을 서술한 것으로 부령의 땀감 수급과 물을 공급하는 사정을 주변의 회령과 비교하여 소개함으로써 부령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여 서술하였다.

(라)는 실제로 본 장백산의 모습과 현지인들에게서 직접 물어서 획득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장백산은 백두산의 별칭으로 함경도 단천, 길주 등 여러 고을에 걸쳐 있는 조선 최고의 명산이다. 따라서 장백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함경도」 편의 경성, 길주, 회령 등 북관 지역 주요 府의 〈山川〉 항목에서 볼 수 있는데⁶³⁾ 대개 부에서의 거리와 높이, 그리고 천지의

61)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長白山, 四時皓然. 唯六月至七月初旬無雪, 自靑巖西望, 峯巒樹木, 歷歷可指, 約不過五六十里, 問諸居民則二日可到, 蓋其間有數重嶺, 道路極險而然也. 山中雜草不生, 樹木擁腫, 皮厚寸餘, 盛夏, 麋鹿羣聚無數, 以避蚊蟲之蟄云.”

62) 김묘정, 앞의 논문, 302쪽.

63) 『新增東國輿地勝覽』 「吉成縣」 편에는 “장백산, 현의 서쪽 1백 16리에 있다. 경성부 항목에 상세하다[長白山, 在縣西一百十六里, 詳鏡城府.]”라고 기록되어 있고, 「회령도호부」 편에는 “백두산, 바로 장백산이다. 부의 서쪽으로 7, 8일 걸리는 거리에 있다. 산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백 리이고, 가로는 천 리에 펼쳐 있다. 그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白頭山, 卽長白山也. 在府西七八日程, 山凡三層, 高二百里, 橫亘千里. 其顛有潭, 周八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규모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성도호부」 편에는 “백산, 부의 서쪽 1백 10리에 있다. 산세가 매우 험하여 5월이 되어야 눈이 녹으며, 7월이면 다시 눈이 쌓인다. 산꼭대기에는 나무의 키가 낮고 작다. 지방 사람들은 이 산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⁶⁴⁾라고 기록되어 있어 기후와 식생까지 살펴볼 수 있다. 『북관지』에는 「경성부」 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똑같이 서술되어 있다.⁶⁵⁾ 기존의 지리지에는 5월이 되어야 눈이 녹는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청암록」에는 6월에 눈이 녹는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송곡이 실제로 관찰하고 확인한 것으로 기존의 지리지 기록을 수정한 셈이다. 6월에야 눈이 그치는 장백산의 기후는 시 〈長白山 六月始銷雪〉⁶⁶⁾를 통해서도 묘사되었다.

장백산에 대한 거리는 대개 府治를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암록」의 경우 우령부에 속한 작은 마을인 청암을 기점으로 바라본 장백산의 모습과 거리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청암 지역의 지리 지식 확장에 의미가 있다. 또한 송곡은 자신이 미처 관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인들에게 물어가며 보다 세세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록하였다. 청암에서 도보로 이틀이 걸리는 시간과 그 이유가 수많은 고개와 험한 도로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풀이 자라지 않고 수목이 울창한 식생, 사슴이 많고, 파리와 모기가 많은 자연 환경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장백산을 실제로 등반할 때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하다.

이처럼 송곡은 청암에 살면서 전대 문헌을 통해 알고 있던 지리 지식에 현지에서 실제로 본 토지나 산세, 기후 등 보고 관찰한 것(見)과 현지인들을 통해 듣고(聞), 묻는(問)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리 지식을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청암록」은 여느 지리지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암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어 청암 지역의 지리적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64) 「鏡城都護府」, 「咸鏡道」,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0. “白山, 在府西一百十里, 山勢甚峻, 至五月雪始消, 七月復有雪, 山頂樹木矮小, 土人亦謂之長白.”

65) 『北關志』, 「鏡城府」, “白山, 在府西一百十里, 山勢甚峻, 至五月雪始消, 七月復有雪, 山頂樹木矮小, 土人亦謂之長白山.”; 「吉州」, “長白山, 在州西一百十六里, 詳鏡城府.”

66) 李瑞雨, 〈長白山, 六月始銷雪〉, 『松坡集』 권4. “長白長含白雪輝, 雪峯遙似白雲飛. 今朝却變青螺髻, 儘有炎皇六月威.”

2)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을 통한 사실성과 현장성의 확보

송곡은 청암에 머물면서 그곳의 특이한 풍속들을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함으로써 청암과 북관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이 확장되는데 일조하였다. 이와 같은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은 「청암록」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이다. 송곡이 활용한 사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청암 지역에 살았던 1680~1683년 사이 지역민들에게 듣거나 자신이 직접 본 것 혹은 직접 체험한 최근의 일들이다. 또한 ‘신유년 여름’·‘임술년 겨울 종성’·‘임술년 여름’과 같이 사건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시간과 ‘도촌’·‘종성’·‘경성’ 등과 같은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생생한 정보들로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독자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다음의 글은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풍속과 군역을 감당하지 못해 아들을 땅에 묻는 埋兒의 풍속을 실제 사례를 들어 기록한 것이다.

(가) 도촌에는 삼십 가구가 있는데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은 자가 네 명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어머니는 60세에 개가했고, 세 명은 딸에게 의지하여 살았다. 대개 풍속이 아들에게 박하고 딸에게는 후했다. 그러므로 딸은 봉양할 줄 알지만 아들은 아니다. 일찍이 들으니 ① 업무 안씨가 자식의 상을 당했는데 무당이 그 할머니가 복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안씨는 마침내 그 어머니를 내쫓으니 어머니가 달아나 딸에게 의지하였다. 그 뒤에 아들의 집에 한두 번 갔는데 안씨 부부가 때리며 욕하기를 ‘다시 다른 손자를 죽이려고 하오?’하고 내쫓았는데 날이 저물어 울타리 밑에서 자고 울부짖으며 갔다고 한다. ② 신유년(1681년) 여름에 나의 노복이 생선을 사려고 바닷가 마을에 갔는데 한 살 정도 젊은 사내가 늙은 할머니를 때리고 주먹질하고 발로 찼다. 조금 있다가 몇 사람이 뒤따라와서 해명을 하기에 물어보니 그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노복이 “이와 같은 큰 변고를 어찌 관아에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하자 해명하던 사람이 “소문이 나면 좋지 않을 것인데 어찌 드러내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③ 임술년(1682년) 겨울 종성에서 어머니를 시해한 변고가 있어서 판관이 죄에 걸려 파면되었다. 좌수 이하가 사례를 올리

면서 “저희들이 일의 번고를 겪지 못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명백하게 아
되지 못하고 정지시켰으니, 이는 저희들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머물러 지내는 집의 주인이 품관이었는데 그가 일찍이 “우리 지방의 풍
속이 아주 후해서 사람이 비록 패역스럽고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여도
아직 관아에 고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아! 저 사람들이 악인을
편들어 보호하는 것을 미숙으로 여기니 이것은 무슨 마음인가?⁶⁷⁾

(나) 일찍이 들으니 북쪽 지방의 풍속은 군역을 괴로워하여 집에서 네다
섯 명의 아들을 낳으면 그중의 한 명을 묻는다고 하였는데 마음에 두고
서 징험하니 과연 그랬다. 이 마을은 신유년(1681년) 한 해 동안 아이를
묻은 자가 또한 네 명이었는데, 그중 ① 한 명은 관의 군관인 차씨 성의
사람이었다. 본디 착하다고 칭찬을 받던 자였다. ② 또 한 명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귀화인의 자손이므로 군역의 걱정이 없는 자였다. ③ 이
웃 여인 용생이 일찍이 나에게 “제가 들으니 수년 전 같은 마을에 박좌수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크고 밭이 많은 부호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녀가 7~8명으로 마지막에 얻은 아들 한 명을 산속에 버렸는데 이웃의 나
물 캐던 여인이 마침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몰래 거두어서 돌아왔는데
박좌수가 듣고 와서 여인을 꾸짖고 뺨을 때리고 아이를 빼앗아 다시 묻
었습니다.”라고 하였다. ④ 이웃의 창기 추향이는 아들을 낳자 강제로 들
고서 “처음에는 반드시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서울의 양반이 듣고서 알
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 차 군관의 아버지 역시 울면서 “우리 아
이가 아들을 묻은 것을 영광께서 반드시 아실 것인데 나를 금수처럼 볼
것이니 다시 볼 날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들도 진실로 한 끝의 수오지심이 있는 것인데 도리어 차
마 하지 못할 것을 차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⁶⁸⁾

67)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陶村三十家, 有母不養者四人, 其一母六十改嫁而去, 其三則依於女, 盖俗薄男厚女. 故女知養而男則否. 嘗聞業武安姓人喪其子, 巫言其大母無福之致, 安遂逐其母. 母走依於女. 後嘗一再至男家, 安夫妻毆且詈曰, 復欲殺喫他孫耶. 日暮宿籬下, 號咷而去云. 辛酉夏, 余奴爲買魚至海村, 有一年少漢, 趕老嫗而拳蹴之, 俄有數人尾至喻解, 問之則其母也. 奴云如此大變, 何不告官. 解者曰, 聽聞不好, 何可彰說. 壬戌冬, 鏡城有弑母之變, 判官坐罷, 座首以下進謝曰, 某等不經事變, 起報使之時, 不能稟白停止, 是某等之罪也. 余居停主, 品官也. 嘗詈曰, 吾俗厚甚, 人雖有悖逆穿窬之行, 未嘗徑告於官. 噫, 輩輩以庇護惡人爲美俗, 是何心也.”

68)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曾聞北俗苦軍役, 家生四五子, 輒埋其一, 念驗之, 果然. 此村辛酉一年之內, 埋兒者亦四人. 其一, 官軍官車姓, 素以良善見稱者. 其一陶者, 向化子孫,

(가)의 글은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아들의 사례를 서술한 것이다. 첫 번째는 도춘의 안씨 부부 사례, 두 번째는 자신의 노복이 직접 겪은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증성에서 어머니를 시해했던 세 가지 사례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다.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시해하는 아들의 패륜적 행위와 이를 크게 죄악시하지 않는 풍토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건국된 조선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일은 인륜을 해치는 강상의 죄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하지만 북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드러내어 처벌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것을 후한 풍속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송곡은 이에 대해 악인을 편들어 보호하는 것을 미속으로 여기는 것을 개탄하였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도 청암에 살았던 신유년 여름과 임술년 겨울 그리고 자신의 노복이 청암에서 직접 겪은 사례와 도춘, 증성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사례가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나)는 군역의 부담으로 인해 여러 아들 중 한 명을 땅에 묻는 매아의 풍습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송곡이 청암 지역에 머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상 풍속 중의 하나가 매아의 풍습이다. 『북관지』 「경성부」 편에 북관 지역의 풍속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 북관 지역 풍속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관지』에는 북관 지역의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자식을 기르지 않고 버린다는 내용이 있다.⁶⁹⁾ 매아는 단순히 자식을 버리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살아있는 자식을 묻어버리는 끔찍한 풍속이다. 송곡은 북쪽 지방에 매아의 풍습이 있었음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살아있는 자식을 땅에 묻는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으므로 쉽게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던 청암 지역에서만 신유년 한 해 동안에 네 명의 아이가 땅에 묻혔던 일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여기

無軍役之憂者也。鄰女龍生嘗語余，妾數年前，同社有朴座首者，大屋多田，富豪人也，子女七八人，最後得一男，棄之山中，鄰女挑菜者，適聞呱呱，潛收而還，朴也聞之，往請掌其類，奪兒復埋之。鄰娼秋香者生子，強舉之曰，始欲必殺，其如京兩班之聞知何。車軍官之父亦泣曰，吾兒埋子，令公必知之，視我如禽獸，無顏更進云，然則彼固有一端羞惡之心，而反忍於不可忍之地，何也。”

69) 李植, 〈風俗〉, 『鏡城府』, 『北關志』, “或多生子則不育而棄之”

에서도 ‘이 마을[此村]’, ‘신유년 한 해 동안[辛酉一年之內]’ 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명기함으로써 사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송곡이 실제 사례로 들었던 네 명을 살펴보면 차 군관, 귀화인의 후손인 도공, 박 좌수, 창기 등이다. 군관이나 좌수의 자리에 있는 지배계층에서부터 군역의 의무가 없는 귀화인의 후손,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의 창기에 이르기 까지 신분이나 빈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매아의 풍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곡은 지역민들 스스로가 아이를 묻는 일이 금수와 같은 일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악습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매우 통탄해했다. 송곡의 시 〈北俗往往埋兒 聞之賦憤〉⁷⁰⁾는 매아의 풍습에 매우 충격을 받고 분개했던 당시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서 송곡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동생의 아들을 살렸다가 집안의 대가 끊겼던 鄧攸의 고사⁷¹⁾와 올빼미가 병아리를 채가면 슬피 우는 어미 닭을 비유하며 매아의 풍습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다) 나라의 풍속이 모두 음사를 숭상하는데 북쪽 지방이 매우 심하다. 해마다 절사 및 질병, 송옥, 행역을 영위하는 일에서 개 기르는 병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당을 맞이하여 귀신에게 빈다. 임술년(1682년) 여름에 한 마을에 천연두가 돌자 비록 가난한 집이라도 소를 잡아 역신을 보내지 않는 집이 없었다. 마을 안에 남자 무당 네다섯 명이 모두 편안히 앉아서 입고 먹으면서, 장구를 치니 비는 날이 없었다. 그곳의 어리석음과 미혹함이 이와 같았다.⁷²⁾

(라) 신유년(1681년) 겨울에 종성에 사나운 범이 나타나 사람 10여 명을

70) 李瑞雨, 〈北俗往往埋兒 聞之賦憤〉, 『松坡集』 권4. “靑山深處少人知, 兒死歸來更有兒. 獨向窮途欺伯道, 古今天意兩堪疑.”, “人家那不愧馴雞, 八九春雛羽翮齊. 異日定知無反哺, 每逢鴟拂却驚啼.”

71) 등유는 쫓나라 사람으로 자는 伯道이다. 난리가 나자 피난을 가다가 亂賊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을 버리고 조카인 동생의 아들을 살렸는데, 이후 조카가 아들을 낳지 못해 집안의 대가 끊겼다. 『晉書』 권90, 〈鄧攸傳〉.

72)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國俗皆尙淫祀而北爲甚. 歲有節祀及有疾病訟獄行役營爲之事, 以至畜犬之病, 皆迎巫禱鬼. 壬戌夏, 一村痘疫, 雖貧家, 無不殺牛饑神. 村中男巫四五人, 皆安坐衣食, 杖鉞無虛日, 其愚惑如此.”

잡아먹었으므로 병졸을 출동시켜 맹호를 잡게 하였는데 병졸이 무서워 떨면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령되어 말하기를 “호랑이의 발자국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⁷³⁾

(마) 계해년(1683) 초하루 아침 경성의 기생 중에 갑자기 죽은 자가 있었고 한 백성도 그렇게 죽자 府의 사람들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떠들어 댔다. 판관 이자서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내고 제문을 만들어 강가에서 빌었다.⁷⁴⁾

위의 세 가지 사례 역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기함으로써 실제 일어났던 사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경우이다. (다)는 유난히 무속에 대한 맹신이 컸던 풍속을 기록한 것이다. 청암 지역민들은 제사에서부터 개를 기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일을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빌어 해결하고자 했다. 송곡은 이와 같은 미신에 대한 맹신의 세태를 ‘임술년 여름’ 천연두가 창궐했던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여기에서도 ‘임술년 여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였다.

(라)의 글은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십여 명이나 잡아 공포에 떨게 했던 신유년 겨울 종성에서 있었던 일을 사례로 든 것이고, (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가 나서서 제사를 지냈던 사건을 사례로 든 것이다. 여기에서도 ‘계해년 초하루 아침 경성’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송곡은 북관 지역의 풍속을 서술함에 있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록 방식은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여 독자에게 신뢰성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송곡이 「청암록」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당시 북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이 거의 없었으므로 직접 발품을 팔아 실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를 스스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3)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辛酉冬, 鍾城有猛虎, 食人且十餘, 發卒捕之, 卒惴慄不敢前, 妄云不見虎蹤.”

74)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癸亥元旦, 鏡城妓有暴死者, 一民亦然, 府人譁謂鬼行. 判官李子西涓日設祭, 爲文禱于川邊.”

3) 직접 경험과 검증을 통한 사실의 확인

「청암록」은 목사에서 공사 노비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직접 듣고 본 것은 물론 궁금한 것은 직접 물어서 확인하고 징험하는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문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사건은 사실일 수도 있고, 과장되어 부풀려지거나 혹은 거짓일 수도 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오류를 남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송곡은 이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인하여 검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기록 태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전달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가) 일찍이 북쪽 지방의 풍속은 군역을 괴로워하여 집에서 네다섯 명의 아들을 낳으면 그중의 한 명을 묻는다고 들어서 마음에 두고서 징험하니 과연 그러했다. (후략)⁷⁵⁾

(나) 평사 홍종지가 일찍이 말하기를 “북방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영롱한 빛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시험해보니 정말 그러했다. 오직 어린 아이에게만 간혹 바른 것이 있었다. 어찌하여 조물주가 형상을 부여할 때 처음에는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자라면서 어리석고 사나워져 점점 쌓여 변경된 것인가? 그렇다면 처음에 선악이 사람의 눈동자를 변하게 한 것이지만 끝에 가면 눈동자로 사람의 선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⁷⁶⁾

(다) 삼을 다스려 포를 만드는 것에서 실을 뽑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절차가 대략 15가지 있다. 분속이라는 것은 삼을 베어 부드럽고 가는 십승포를 만들 만한 것을 골라 따로 묶는다. 또 그 다음으로 칠팔승포를 만들 만한 것을 따로 묶고, 오륙포를 만들 만한 것을 따로 묶고,

75)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曾聞北俗苦軍役, 家生四五子, 輒埋其一, 念驗之, 果然. (후략).”

76)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洪評事宗之, 嘗謂北人眼瞳無正嵌者. 余驗之信然. 唯小兒或有正者. 豈造物賦形, 初無南北之異, 而長而愚悍, 積漸變改耶. 然則其始也, 善惡可以變人眸子, 而其終也, 眸子可以觀人善惡矣.”

삼사승포를 만들만 한 것을 따로 묶는다. (중략) 베를 짜는 공정과 순서는 제한된 날짜가 있어 반드시 해를 넘긴 뒤에야 완성된다. 목면과 같이 단지 씨를 제거하고 목화를 타서 물레에 실을 자아 베틀에 올려 며칠 만에 면포를 짜는 것과 다르다.⁷⁷⁾

(가)는 매아의 풍습에 대해 기록한 내용 중 일부이다. 송곡은 군역의 괴로움으로 인해 북쪽 지방에서 매아의 풍습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은 같은 마을에 사는 네 사람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이를 기록하였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나)는 당시 북평사로 재임하고 있던 宗之 洪萬朝(1645~1725)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홍종지가 북방 지역 사람들의 눈빛이 영롱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송곡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눈빛을 관찰하고 시험하여 자라온 환경이 사람의 선악을 기르고 그것이 결국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는 삼베를 짜는 과정을 서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송곡은 삼베짜기 중 삼에서 실을 뽑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15개로 나누고 이를 하나하나 소개하였다. 이는 여느 풍속지나 지리지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삼베 짜기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대개의 지리지에는 북관 지역의 토산물로 麻를 가장 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삼베가 유명한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청암록」에 서술된 것처럼 삼베 짜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후대에 서술된 『북관기사』에도 삼베가 생업이며 여인들이 쉬지 않고 베를 짜느라 햇볕을 보지 못해 살결이 희고 곱다는 내용이 보일 뿐이다.⁷⁸⁾ 송곡은 삼베짜기의 어려움을 먼

77) 李瑞雨, 「靑巖錄」, 『松坡集』 권20. “治麻爲布, 紡績之最艱者. 其節次大約有十五. 曰分束, 其刈麻也, 擇嫩細可爲十升布者別束之, 又其次七八升者別束之, 五六升者別束之, 三四升者別束之. (중략) 其功程序, 自有日限, 必經歲而後成. 非如木綿只可去核彈花, 繅絲上機, 作布於數日之內者也.”

78) 洪儀泳, 「風土民俗」, 『北關紀事』. “麻布生業, 無家不爲, 而其佳品則以鍾城、會寧爲最一. 女人晝夜勤績, 而一年不過三四疋. 土埃篝燈夜不交睫, 晝亦如是., 不見風陽, 故北女之稱爲白皙者, 以此故也.”

포 짜는 일과 비교하여 그 어려움을 짐작하도록 했다.

이처럼 송곡은 낮은 곳에서 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유배지에서 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자가 점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재난에 가까운 비일상의 체험은 새로운 일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확장해 나가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도 한다. 「청암록」의 저술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청암록」은 청암과 북관 지역의 다양한 면모와 지역민의 일상과 매우 밀착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찬 지리지 혹은 지방 수령의 시각에서 저술된 사찬 지리지와는 다른 면모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청암록」의 저술 배경으로 먼저 경신환국으로 인해 남인들이 이 정계에서 대거 축출되는 정치적 상황과 이로 인해 송곡이 유배를 가게 된 원인을 살폈다. 그리고 유배지인 함경도 부령과 청암 그리고 북관 지역의 풍속을 이역의 풍속으로 보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청암록」을 저술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박학과 실용성을 추구했던 북인계열의 학문 성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용성의 추구는 송곡이 유배 기간 동안 창작하였던 수많은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배 이전인 1669~1670년 함경도 고산의 찰방을 지냈던 官歷이 함경도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청암록」은 항목별로 구성된 여느 지리지와 달리 2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에는 지리·풍속·경제·국방·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북관 지역의 면모를 담고 있다. 「청암록」의 내용은 크게 지리·주민·주거·토질·경제·풍속 등 북관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 전반에 증점을 둔 것과 국

방·관리·지역 문서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는 서술에 중점을 둔 부분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북방 특유의 일자형 가옥 구조와 손님과 주인이 한 공간에서 기거하고 여주인과 머슴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주거 문화를 비롯해 군역의 고통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땅에 묻는 매아의 풍습과 모친을 폭행 사건, 부부간 혹은 숙질, 남매간에 폭행이 빈번한 풍속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토질과 농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풍토, 삼베짜기의 전과정을 소개하고 북관 지역의 삼베가 최고의 품질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방 관리들의 문제와 나약한 군사력, 글도 못 읽으면서 儒林 행세에만 專一하는 지역 文士들의 문제점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비판하기도 하였다.

「청암록」의 기록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리 지식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방식이다. 낮은 공간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리적 측면에서 공간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다. 송곡은 전대 문헌을 통해 알고 있던 지리 지식에 청암과 부령 지역에 본 지리의 특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현지인들에게 듣고, 물어가며 해당 지역의 새로운 지리 지식을 확장해 나갔다. 두 번째는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을 통해 사실성과 현장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송곡은 청암과 북관 지역의 특이한 풍속들을 기록하는데 있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실제 사례 중심의 기록은 「청암록」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기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록 방식은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생생한 정보들로 현장감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 세 번째는 직접 경험과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기록 방식이다. 송곡은 이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하여 검증하는 기록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전달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함경도 지역의 대표적인 풍속자료는 대부분 18~19세기에 저술되었는데⁷⁹⁾ 이에 비해 「청암록」은 1684년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이들보다 상당히 앞선 시기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17세기 말 청암을

비롯한 북관 지역의 생활사 및 지방사, 지리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청암록」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일성록』·『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북관지』 등 이전의 사료와 지리지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암과 북관 지역의 지리와 지역민들의 삶과 일상을 매우 짚고 다스려 사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이 지역의 지리학적·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암록」은 유배라는 비일상의 체험을 새로운 지식 생산의 계기로 삼았던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유배 견문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청암을 비롯한 북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종합 박물지로서 가치를 지닌다.

79) 이 시기 저술된 풍속 자료들은 함경도의 지방관을 지낸 현직 관료들이 저술한 것과 유배나 기행을 통해 개인이 저술한 자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689년 함경도 길주 목사로 부임한 柳檣(1626~1701)의 『北土風俗奇異』, 1729년 함경도 종성 부사로 부임한 柳升鉉(1680~1746)의 『北道風土大略』, 1777년 경흥부사로 부임한 洪良浩(1724~1802)의 『朔方風土記』·『朔方風謠』·『北塞雜徠』 등은 함경도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지은 것으로 현직 관료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북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상을 포착하여 기록하고 있다.(정우봉, 위의 논문, 20쪽.) 또한 朴齊家(1750~1805)의 『愁州客詞』, 丁範祖(1723~1801)의 『北塞雜曲』·『北征錄』, 趙秀三(1762~1849)의 『北行百絶』, 柳義養(1718~1788)의 『北關路程錄』, 李匡明(1701~1778)의 『北竄歌』·『夷州風俗通』 등은 함경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저술한 것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유배지의 풍속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李瑞雨, 『松坡集』, 한국문집총간 41, 민족문화추진회.
李 植, 『北關志』, 국립중앙박물관.
_____,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李學達,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민족문화추진회.
丁若鏞, 『茶山詩文集』, 민족문화추진회.
許 穆, 『記言』, 한국문집총간 98, 민족문화추진회.
洪義榮, 『北關紀事』, 한국고전번역원.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顯宗實錄』
『肅宗實錄』
『景宗實錄』
이서우 저·이석호 역, 『국역 송파집』, 우계이씨판서공파종친회, 2016.

2. 논저

- 강석근,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의 유배시(流配詩) 연구(研究)」, 『동방학』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권경록, 「松谷 李瑞雨의 「赤壁賦集字 各體四十首」에 나타난 流配의 재현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회연구』 48, 동양한문학회, 2017.
김덕수, 「이서우 문학에 구현된 정치적 견해의 형상화 양상」, 『한국계보연구』 12, 한국계보연구회, 2022.
김묘정,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가 포착한 일본의 일상 지식-『해행총재(海行摠載)』의 문견록(聞見錄)을 중심으로」,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22.
김미영, 「조상 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 김백철, 「조선후기 咸鏡道 지역사 試論-奎章閣 소장 地理志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 김효정, 「17세기 전반 北人系 南人 시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
- _____, 「송곡 이서우의 시세계 일고찰-을병대기근을 묘사한 재난 관련 시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학학회, 2021.
- 부유섭, 「동주 이민구와 남인 시맥의 전개」, 『한국한시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0.
- _____,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신병주, 『조선후기 지성사 연구』, 새문사, 2000.
- 심경호, 「18세기 중·말엽의 남인 문단」, 『국문학연구』, 태학사, 1997.
- 알프레트 헤트너 지음·안영진 옮김, 『지리학 -역사, 본질, 방법』 2, 아카넷, 2013.
-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민중서관, 1961.
- 임미정, 「송곡 이서우의 시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윤재환, 「17세기 漢詩에 수용된 日常의인 것의 意味와 限界-梅山 李夏鎭의 詩를 中心으로」, 『한문교육논집』 24,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 _____, 「조선후기 유배 경험의 시적 형상화-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근기 남인 시맥의 형성과 전개」, 문예원, 2012.
- 정우봉, 「조선후기 풍속지리 문헌에 나타난 關北 지역과 그 인식의 차이」, 『고전과 해석』 19, 고전문학한문학학회, 2015.
- 조동일, 「유배문학의 특성과 양상」, 『한국문화연구』 9,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 기타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검색일: 2023. 6. 2.)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3. 6. 2.)
- 한국고전번역원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3. 6.2.)

〈Abstract〉

**A Study on the 「Cheongamrok(靑巖錄)」
of Songgok(松谷) Lee Seo-woo(李瑞雨)
- the Transition from Non-daily Experience
to Knowledge Production -**

Kim, Hyo-J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heongamrok」 of Songgok Lee Seo-woo, a Joseon intellectual in the late 17th century, who used the extraordinary experience of exile outside of daily life as an opportunity for new knowledge production. 「Cheongamrok」 is a book written by Songgok while living in exile in Buryeong and Cheongam, Hamgyeong-do from 1680 to 1684, and contains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various aspects of geography, customs, housing, and society in this area. In Chapter 2, the background of the writing of 「Cheongamrok」 was examined, and in Chapter 3,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Cheongamrok」 were examined. Chapter 4 was divided into confirmation and expans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using seeing and listening to the recording method of 「Cheongamrok」, securing realism and realism through actual case-oriented records, and confirming facts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verification. 「Cheongamrok」 helped expand the geographical and humanistic knowledge of the region by dealing with the customs and daily lives of the Bukgwan area, including Cheongam, which was little known at the time, with various examples. It is also valuable as a local history, geographical historical records, and a historical site where you can check the lifestyle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heongam and Bukgwan area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 Key Words: Songgok Lee Seo-woo, Exile, Non-daily Life, Cheongamrok,
Knowledge Production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17일